



노무현 대통령(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16개국 정상들이 15일 필리핀 세부에서 '동아시아 에너지 안보에 관한 세부선언' 서명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부AFP=연합뉴스

# ‘아세안 공동체’ 구성 빨라진다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공동체 구성 작업이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아세안의 차기 의장을 맡을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아세안공동체 설립을 위한 헌장 마련을 서둘러 올해내에 있을 차기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비준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필리핀 세부에서 열리고있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리 총리는 “2015년까지 구성키로 되어있는 아세안 공동체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공동체 구성은 아세안이 처음이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동체는 아세안 국가들의 교역은 물론 외교문제도 총괄하는 중심체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리셴룽 총리 “차기 정상회의서 헌장 마무리”

### 교역·외교 총괄...EU 뛰어넘는 중심체 될 것

그는 “따라서 1967년 구성돼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아세안은 EU와 맞먹는 새로운 경제 중심체로 거듭 날 것이며 모든 결정은 회원국들의 합의에 따라 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사무국과 조직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세부정상회의에서도 가장 많은 토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공동체 규정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문제였다”고 밝히고 “어느 조직이든지 특별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제재와 축출 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세안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미얀마를

공동체에서 배제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한 결과 미얀마가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아세안은 쿠데타를 일으킨 국가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라운드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생시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공동체 구성은 세부정상회의 직전까지만해도 반부와 종교, 이념 등의 격차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필리핀, 싱가포르 등의 주도에 따라 2015년 시한 이전에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헤노이=연합뉴스

## 가족 없는 라이스 美 국무의 ‘곤욕’ “독신이 군인 가족 아픔 알겠나...”

### 이라크戰 이해 여부 질문 잇따라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전후 안정화 정책 실패로 희생된 미군 병사 수가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독신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가족을 이루지 못한 ‘설움’을 토크로 담고 있다.

올해 52세인 라이스 장관은 졸군 독신으로 살아왔고,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까지 사망해 가까운 피붙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외교 사령탑인 라이스 장관은 지난 13일 예루살렘에서 여성인 치피 리브니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예기치 못한 질문을 받았다.

한 미국인 여자가 결혼하지 않아 자식이 없는 여성이 엄청난 미군 병사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은 것이다.

이에 라이스 장관은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독신 여성이라고 해서 병사들의 희생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녀는 또 희생 없이는 가졌던 어떤 일도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질문의 예봉을 피했다.



라이스 장관은 추가 파병을 골자로 한 부시 대통령의 새 이라크 정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1일 열린 상원 외교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비슷한 곤욕을 치렀다. 민주당 소속인 바버라 박서 의원이 라이스 장관을 향해 “누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정책과 관련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내가 알기로 (미군이 증파되더라도) 가까운 가족이 없는 당신은 특별한 대가를 치를 일이 없다. 대가를 치를 사람들은 미군 병사와 그들의 가족이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서 의원의 발언 이후 미국에서는 독신인 라이스 장관이 이라크 전쟁의 후유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를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 토론 공간을 달구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다. /카이로=연합뉴스

## 美 CIA, 한국사 왜곡 오류 시정

### 반크, 동해 단독표기도 요구

한국 고대사를 왜곡해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마침내 오류를 시정했다.

15일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CIA는 국가정보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1천 년 동안 독립국가였다”는 내용을 “지난 수천 년간의 오랜 독립역사인 한국”으로 최

근 시정했다.

반크는 지난해 12월5일 CIA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1천 년 동안 독립국가였다”고 소개하자, “한국은 1천 년 이전에는 독립국가가 아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고구려와 고조선의 역사를 고대사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CIA 측에 정정을 요구하며 항의서한을 보냈다.

하지만 CIA는 반크가 시정을 요구한 ‘일본해’ 단독 표기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 후세인 최측근 2명 사형집행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함께 1982년 두자일 마을 주민 학살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바르잔 이브라힘 알-티크리티 전 이라크 정보국장과 아와드 알-반다르 전 혁명재판소장이 15일 새벽(현지시간) 교수형 됐다. 지난해 12월30일 새벽 후세인이 처형된 지 16일 만이다.

문키드 알-파룬 이라크 검사는 “이라크 정부가 (15일) 동이 뜨기 전 우리를 불러 사

람 하나를 (사형장에) 보내라고 했다”며 “나는 처형 참관을 위해 판사 1명을 보냈고 (처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로써 두자일 마을 주민 148명 학살사건으로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 3명의 사형 집행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라크 항소법원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종신형이 선고된 타하 야신 라마단 전 부통령에 대해서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법원(이라크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상태여서 앞으로 1명 더 처형될 가능성도 있다. /두바이=연합뉴스

## ‘反美좌파’ 코리아 에콰도르 대통령 취임

### 이란 대통령 “남미권과 반미동맹” 역할

강경좌파 라파엘 코레아(43)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자가 15일(현지시간) 신임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코레아 당선자는 취임식 하루 전 원주민 전통 의식으로 지도자를 추대하는 사전 취임 행사를 거행, 향후 집권기간 좌파 포퓰리스트 민족주의 정책을 펼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수도 키토 남쪽 90km 떨어진 솜바우아 마을에서 거행된 원주민 의식에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등이 직접 참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에콰도르 최근 10년 정치사의 8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코레아 당선자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적으로는 급진적 사회, 정치 개혁을 위한 제헌의회 구성이 곧바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서방기업들은 미국-에콰도르 간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자인 라파엘 코레아(가운데)가 취임식 하루 전인 14일 솜바우아 마을에서 열린 토속행사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왼쪽),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과 함께 참석, 농담을 나누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가지분 확대 등 코레아 당선자의 공약으로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코레아 당선자 취임식에는 핵 프로그램으로 미국 등 서방권과 대립해온 마무드 아마

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참석한다.

특히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14일 니카라과 방문에서 중남미권 “혁명적 국가들”과 반미(反美)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 中 ‘관광 대국’ 급부상

### 작년 1억2천만명...세계 4위

불거리와 먹거리 등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이 ‘관광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국가여행국은 지난해 중국 방문 관광객 수가 1억2천400만명(홍콩, 마카오, 대만인 관광객 포함)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관광 수입은 335억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관광 수입은 중국 서비스 수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럽, 북미, 인도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다.

향후 전망은 더욱 낙관적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EXPO) 등 대형 국제행사가 줄줄이 대기 중이어서 앞으로 몇년간 중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국채리뷰' (Government Bond Review)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text about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government bonds.